

김용석 대광위원장, “고양창릉지구 교통시설 적기구축” 강조

- 15일 고양창릉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점검… 철저한 공정관리 당부

□ 국토교통부(장관 김윤덕)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(이하 대광위) 김용석 위원장은 10월 15일 오후 주택공급 확대 정책(9.7)에 따른 ‘신도시 교통대책 신속 추진 TF’의 일환으로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현장을 찾아 광역교통개선 대책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.

○ 고양창릉지구는 고양시 덕양구 일대 약 7,890천m² 면적(여의도 2.7배)에 총 3.8만호를 공급하는 지구로, 서울역까지 10분대 쾌속 이동이 가능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(GTX)-A 창릉역 설치, 고양은평선* 신설 및 서부선 직결, 곡산역~화정동 연결도로 마련 등의 광역교통개선대책 시행으로 교통여건도 대폭 개선될 예정이다.

* 서울지하철 6호선 새절역~창릉지구~화정지구~고양시청역 연결, 총 길이 15.0km

□ 김 위원장은 “고양창릉지구는 서북부 수도권을 이끌어갈 중요한 3기 신도시의 하나로서, 신도시 입주와 광역교통서비스 공급간의 시차를 최소화 하여 주민들의 정주 편의를 확보해야 한다”며 광역교통 인프라 적기 구축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.

○ 또한, “’27년 첫 입주가 예정된 만큼, 대광위는 사업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등의 장애요인을 선제적으로 해결해나가겠다”며, “관계 기관도 더 나은 교통편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해달라”고 당부했다.

담당 부서	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정책과	책임자	과 장 김혜진 (044-201-5045)
		담당자	사무관 임종채 (044-201-5050)